

## 이엔비즈, 내년 매출 50억 예상

환경산업부문 B2B 시범사업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전체 B2B시범사업중 2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9일 환경부문 B2B 주관업체인 이엔비즈는 그린 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환경산업부문 B2B 2차년도 시범사업 워크샵”을 개최하고 그동안 사업진행 성과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김준동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환경부문 B2B 부문은 짧은 시간에 매우 우수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격려한 후 “전체 B2B 지원사업 평가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오프-온라인의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한다면 성공적인 e-비즈니스로 정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엔비즈의 김학명 사장은 “2차년도 사업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며 환경부문 B2B는 기존의 영업방식 외에 글로벌 구매, 수출대행, 입찰대행, 물품구입대행 등 업체들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든 일을 맡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이엔비즈는 내년 4월까지 매출목표 50억원과 순이익 1억원을 달성하고 오는 2006년까지는 매출 300억원, 순이익 6억원을 올려 정부의 시범사업 종료후 자립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환경부문 B2B사업 2차년도 신규참가업체는 36개 업체로 1차년도 이후 전체 참가업체는 총 66개사이다.

## 상반기 우수환경설비 7개품목 인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올 상반기에 (주)한국클리너지의 “흡착 촉매방식을 이용한 외기 정화설비” 등 7개 업체 7개 품목을 우수 환경설비로 인정, 환경설비 품질인증서를 지난 7월 1일 수여했다.

기표원은 환경오염 방지와 국내 개발 환경설비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확보, 품질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우수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상반기에는 21개 업체 22품목을 신청 받아 7개업체 7개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한편 이번 환경설비 품질인증 기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분야의 (주)한국클리너지를 비롯 수질오염방지시설분야의 한국정수공업(주), (주)원창엔텍, (주)타셋, 동명산업(주), 재활용설비분야의 (주)거산기계, (주)더코 등이다.

## 각종 원료재생, 자원화기술 활발

최근 건설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의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의 고분자폐기물(5천톤 이상발생/1일)은 단순한 처리보다는 각종 원료를 재생해 자원화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하다.

폐기물도 잘만 이용하면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기술개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고분자폐기물 처리기술에 관한 특허는 1993년부터 2002년말까지 총 819건이 출원됐다.

1999년까지의 출원건수는 502건으로 연평균 7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이후는 매년 100건 이상이 출원되고 있어, 최근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내국인의 출원건수는 711건(86.8%)으로 외국인에 의한 출원건수 108건(13.2%)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허출원기술은 폐기물을 저산소 조건에서 부분 연소시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 후에 발생된 가연성 가스를 재연소시키는 열이용기술 용융 압축 압축가공에 의한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유화 용융 가스화 열분해 용해 추출에 의한 원료회수기술 및 분리 파쇄 압축 등의 전처리기술 등이 있다.

## 국내 환경업체 일본 수주활동 활발

국내 환경업체들의 해외 수주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지난 6월 27~3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도쿄환경전(NEXPO2003)에 ㈜키이엔지니어링 등 국내 환경업체 10개국이 참가해 1천258건, 480억원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출 계약도 46건, 3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 이 기간 국내환경산업체 14곳, 20명으로 구성된 '한일 환경산업기술협력단'도 일본을 방문, 44건에 약 51억원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한일간 환경기술교류회 개최, 우수환경시설 시찰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 DDA 환경상품 관련 "환경오염방지관세감면대상물품" 무세화 추진

환경부에서는 WTO DDA 환경상품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관세감면대상물품"을 우리나라 환경상품리스트에 포함을 검토중에 있다.

동 환경오염방지관세감면대상물품이 환경상품에 추가될 경우 WTO DDA 환경상품협상을 통하여 무세화 또는 관세 인하가 추진될 예정.

## SK(주), 난방관용 신소재 독자개발

SK(주)는 미국 다우케미칼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차세대 온수·난방관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PE-RT(Polyethylene Raised Temperature) 신소재를 독자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PE-RT는 기존 PE(Polyethylene 폴리에틸렌)의 장점인 위생성과 가공성에 고온에서의 내구성을 강화한 신소재다.

주로 건축용 온수·난방관용 소재로 이용되며, 건축물의 수명과 같은 최소 50년 이상의 내구성과 우수한 재생성을 자랑하는 고부가가치 신소재라고 SK(주)는 설명했다.

SK(주)는 독자 개발한 PE-RT 제품이 다우케미칼 제품과 동등수준 이상의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오는 2005년까지 세계 시장의 10%인 4천5백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2008년에는 다우케미칼과 세계 시장을 양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SK(주) R&D 센터 광병성 상무는 "국내 플라스틱 온수·난방관 시장 규모는 연간 4만 규모로, PE-RT가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환경친화성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연간 2만 이상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식용기능 1회용기 세계 첫 출시

순수 옥수수알을 가공해 1회용의 식품용기를 제작, 판매하는 한 벤처기업이 환경지킴이의 다크호스로 발돋움하고 있어 장안의 화제다.

환경부가 특히 지난 7월부터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식품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세계 최초 100% 무공해의 식품용기를 개발해 선풍적 인기를 예상한다.

화제의 (주)대륙팜(대표 이필주.45.www.dalufarm.co.kr)은 출하된 순옥수수알만으로 1회용의 식품용기를 개발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양산체제에 들어갈 부푼 꿈에 젖어 있다.

대륙팜은 이어 출시와 함께 제 1공장을 완공하여 국내 대형마트와 슈퍼 할인점의 건과류, 육류 건어류, 채소류, 과일 어패류, 반찬류 등의 반침접시는 물론 트레이와 식당에서 애용하는 배달용기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구상이다.

현행 '예방적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요 골자는 합성수지로 만든 기존의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키 위한 열린제도로 평가된다.

생산과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 제도의 경우 백화점, 음식점 목욕탕 등 유통 소비 분야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을 적게 사용함은 물론 장바구니 사용 등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피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환경연합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지난 4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호르몬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한 바 있어 충격을 던져 주었다. ◀